

공동체 소식



연중 제 31주일

하느님,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하늘과 땅의 재물을 나누며 언제나 선행에 힘쓰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김도영, 박희영(카타리나) 가정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심미사

- 11/8(금) 오전 10시 : 예수 성심 미사 및 십자가의 길
- 11/9(토) 오전 11시 : 성모 신심 미사(미사 30분 전, 묵주의 기도)

사목 방문을 위한 9일 기도

- 기간 : 11/15(금) ~ 11/23(토) 오후 9시, 각 가정
- 방법 : ① 가정 제대에 불을 밝힌다. ② 성호경을 긋고 지향-“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사목방문을 잘 준비하도록 은총을 청합니다”-을 말한다. ③ ‘사제를 위한 기도’ ④ 묵주의 기도 5단(‘환희의 신비’부터) ⑤ ‘성모 찬송’을 바친다.

구역모임

- 1구역 : 11/9(토) 오후 7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12317 W. 102nd St. Lenexa, KS 66215
- 2구역 : 11/9(토) 오후 7시, 안동현 프란치스코 가정 14317 Had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 3구역 : 11/8(금) 오후 8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14304 Outlook St. Overland Park, KS 66223
- 4구역 : 11/9(토) 오후 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8109 W. 144th terr. Overland Park, KS 66223
- 5구역 : 11/9(토) 오후 7시, 김정환 요한 가정 9008 N. Lewis ave. Kansas city, MO 64157

캔사스 상륙회 경로 잔치

- 일시 : 11/10(일) 오후 3시 ~ 7시
- 장소 : Thomahawk Ridge Community Center

기타

- 오늘(11/3) 중심미사 후, 전례부 회의가 있습니다.
- 11월 달, 맨하턴과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본당 전례 관게로 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33	512	156/155	436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고영방(스테파노)	김태중(예레미아)
	고평원(프란치스코)	문예나(요 안 나)
차주	정병훈(보니파시오)	안광민(야 고 보)
	김준영(요 셉)	안광희(크리스토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명은(안 젤 라)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안혜진, 김인자, 정연숙, 한순례
차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네스), 문석찬(요셉)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27	93명	429불	1,180불
감영진, 한봉경, 유길수, 양경직, 이혁구, 이우영, 김창식, 김정애 (총 8세대)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부르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백성에게 비난받고 있던 세관장 자캐오를 부르십니다. 자캐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기쁨을 얻고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캐오처럼 회개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자캐오
(제임스 티소, 1886-1894년, 수채,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 미국)



세리 자캐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캐오를 부르십니다. “자캐오야 일른 내려오너라.”(루카 19,5) 자캐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캐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가 비록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주님께는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지혜 11,22—12,2 < 주님께서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

화 답 송 : 

저 의 하느님 임 금 님 기 리 오 리 다 영 원 토 록 당 신 이 름 기 리 우 리 다

- 저의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 높이 기리오리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
- 주님께서서는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시오이다. 주님께서서는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여여뻘 여기시나이다. ◎
-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님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 나라 영광을 들어 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컫게 하옵소서. ◎
- 주님께서서는 말씀마다 진실하시며 하시는 일마다 자애로우시니이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 붙드시고 억눌린 사람이면 일으켜 주시나이다. ◎

제 2 독서 : 2테살 1,11—2,2
<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 음 : 루카 19,1-10 <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

세 마

“참된 행복의 길”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종교와 많은 단체는 경쟁적으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행복, 곧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성부와 성자를 올바로 알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세리 자캐오의 집에 자청해서 머무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기보다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는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굳어져 있던 자캐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선뜻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자캐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제2독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피조물의 사랑도 그런 힘과 위로가 된다면 창조주의 사랑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죄인마저도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임을 보여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느님께 등을 돌려도 그분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의 눈길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진정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탈선하는 자들도 내치지 않으시고 꾸짖고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큰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리코의 세관장 자캐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로써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직업상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자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당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경건한 이들은 그들과 어떤 접촉도 피했습니다.



- 서울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마중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주교님이 신자들이 사는 한 촌락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곳의 주민들은 모두 집의 문을 성당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놓았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성당에 갈 수가 없을 때에는 문 앞에서 주님의 집을 향하여 바라보았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랑의 법칙에 의한 것이었다. 즉 사랑하는 이와 의 일치리를 이루고자 함이었다.

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그분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친히, 물리적으로 계시며, 우리들이 그분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심에 대하여 성인들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의 일로 생각했던가!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드 살레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하루에 십만 번씩이라도 성체 성사의 예수님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스의 성 마리아 비안네 신부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써 말씀드릴 때, 그분께서는 아기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입 맞추고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지혜 있는 교리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만약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집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즉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분께로 달려가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고 있던 오락이나 일도 멈추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작은 희생을 할 수 있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시며 항상 너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까이 계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6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60.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예수님께 통치권과 영광과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부 오른편이라는 말을 우리는 천주성의 영광과 영예라고 이해한다.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모든 시대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던 분께서 강생하셨다가 육신이 영광스럽게 된 후 그 육신을 지니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예수님이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은 메시아 나라의 시작, 곧 사람의 아들에 관해 예언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시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다니 7,14). 이때부터 사도들은 “끝이 없을 나라”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가톨릭 교회교리서, 664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